

네오아트센터 기획 초대전

장백순, 고완석, 故진익송

1, 2관 : 장백순 - 시공(時空)

3관 : 고완석 - Look

4관 : 故진익송 - Timeless Door

2026. 4. 29. WED — 6. 21. SUN

NEO Art 수암골 네오아트센터

NEOArt

목 차

Contents.

01. 장백순 4~9 p

02. 고완석 10~17 p

03. 진익송 18~25 p

장백순

Jang Baek Soon



1993년 홍익대학교 조소과 졸업

1999년 한남대학교 대학원 졸업

초대전 및 단체전 250여 회

수상 경력/

2025년 CJB문화예술대상 수상(미술부문)

2023년 충북예술상

2010년 현대충북예술상 수상

2001년 청주시 신인예술상 수상

1996년 동아미술대전 특선

1995년-2001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연5회 입선

1990년 충북미술대전 최우수상

1989년 충북미술대전 특선

작품 소장처/

청주시립미술관, 중국우한미술관, 청주시립 대청호미술관,

중국이리예술관, 중국송창당대문헌관, 중국하얼빈조선민족예술관

비워낸 자리에 쏟아지는 영원의 빛 장백순이 빚어낸 거대한 시공(時空)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며, 그 위력 앞에 모든 육신과 세속의 권력은 결국 대지의 품으로 바스러진다."는 작가의 말처럼, 이번 전시는 피할 수 없는 시공의 숙명 앞에서 예술가가 어떻게 찰나를 붙잡아 영원의 불꽃으로 빚어내는지를 묵묵히 보여준다.

이번 초대전은 1, 2관에서 전혀 다른 물성과 분위기로 전개된다. 1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허공에 부유하는 거대한 삼베 두상들과 마주하게 된다. 트럼프와 김정은, 세계정세의 정점에 선 권력자들의 형상을 수의(壽衣)를 짓는 거친 마로 엮어냈다. 어떤 절대 권력도 시간의 바람 앞에서는 스쳐 가는 허무에 불과함을 꼬집는 예리한 은유 속에서, 역사를 비웃듯 너털웃음을 짓고 있는 작가의 자화상이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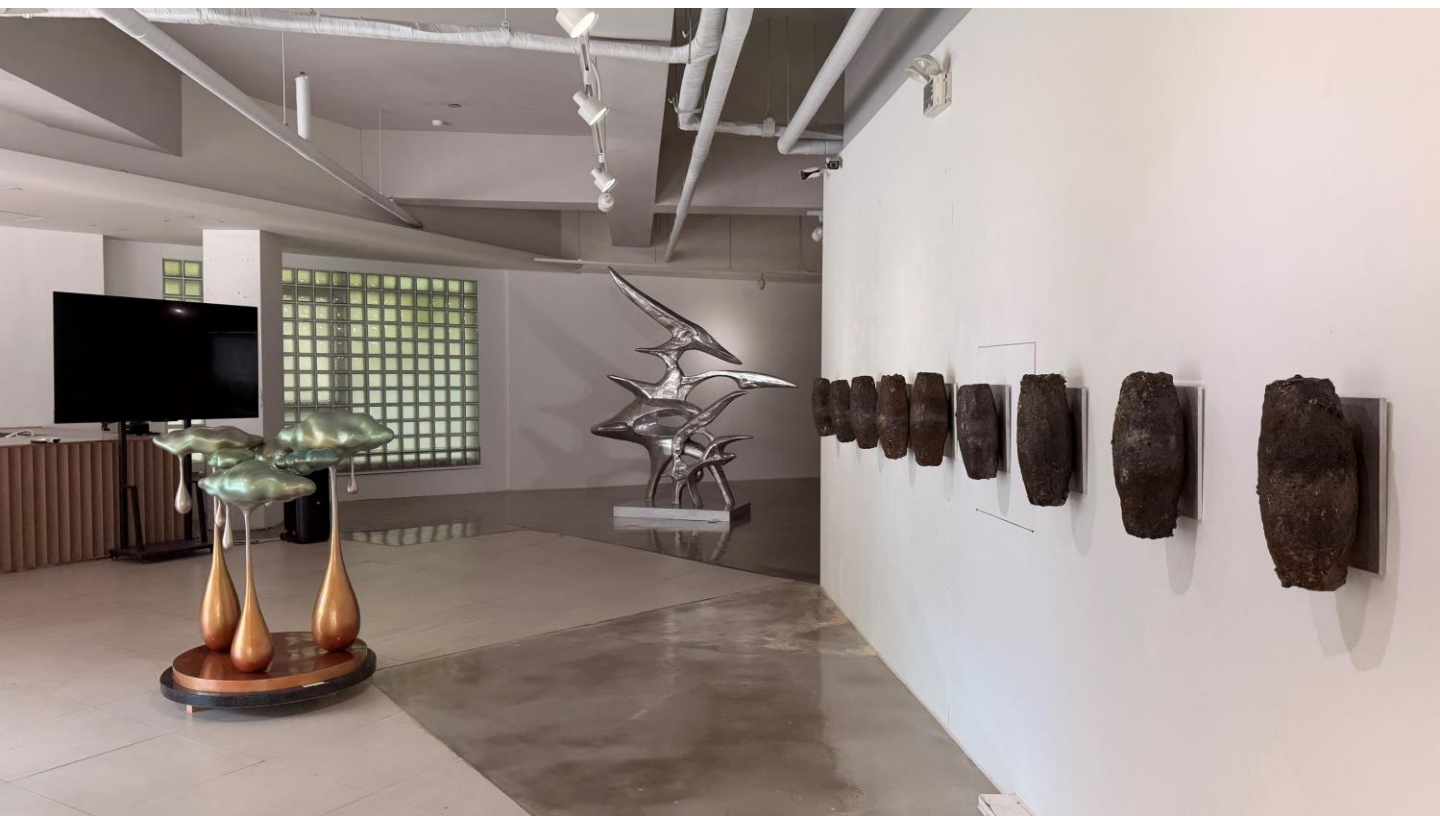
또 다른 한쪽 벽면에는 1800도의 맹렬한 가마 속에서 불필요한 것을 모두 태우고 본질만 남긴 흑연 작업들이 고요히 도열해 있다. 여기에 차갑고 단단한 금속 조각들이 어우러지며, 끊임없이 흐르는 자연의 유동성을 영원히 멈춰 세운 듯한 시공 초월의 경험을 선사한다.

이어지는 2관은 1관의 거대한 긴장감을 작가의 치열한 땀이 밴 '시간의 지층'으로 따뜻하게 포용한다. 대형 골판지를 평면으로 자르고 그 미세한 틈새마다 세필로 안료를 채워 넣었다. 단순한 평면 회화를 넘어 입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이 작품들은 지난 3년간 수행의 결과물이다.

특히 관람객의 발걸음에 따라 은밀하게 색채를 바꾸며 살아 숨 쉬는 것이 특징이다. 그 일련이는 캔버스 위로 고대 암각화를 연상케 하는 도상들이 보이고, 작가가 직접 채집해 가마에 굽고 금박을 입힌 '흙 벌집' 오브제가 눈길을 끈다.

흙 벌이 고단한 노동(자연의 시간)을 불꽃으로 구워내 황금빛(영원)으로 박제한 이 작품들은, 공간을 채우기보다 오히려 '비워냄'으로써 과거와 미래를 하나의 화면 속에 완벽하게 결속시킨다.

우리가 남긴 행위는 흔적이 되어 미래의 길 위로 이어진다. 장백순 작가가 덜어내고 비워낸 네오아트센터의 공간에는 삼베의 성찰, 흑연의 침묵, 금속의 비상, 그리고 골판지 속 수많은 픽셀이 모여 만들어낸 우리네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비치고 있다. 시립미술관의 마 불상 앞에서 필자가 느꼈던 그 순수한 전율이, 이제 이 공간을 거니는 모든 이들의 사유 속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질문으로 다시 움트길 기대한다. / 네오아트센터 박정식 대표



장백순 - 1전시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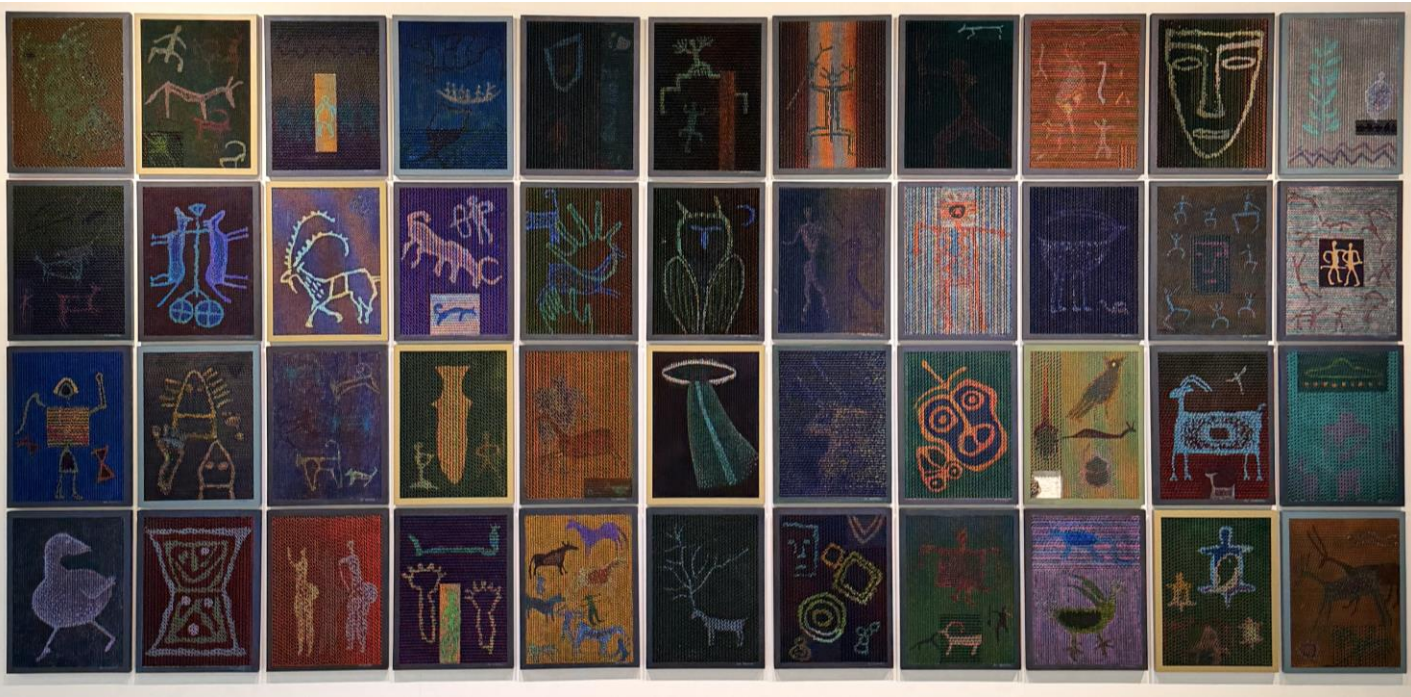


장백순作_ 1800도

가변크기, 흑연, 2025



장백순 - 1전시관 전경



장백순作_ 시공(時空)

30x40cm*44p, Paper, Acrylic, 2024-2026

고완석

Goh Wan Suk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졸업

개인전 36회 및 단체전 350여 회

수상 경력/

MBC 미술대전 장려상

동아 미술제 특선

미술세계 대상전 특선

MBC 미술대전 특선

가톨릭 미술대전 우수상

국제뉴아트페어상

교육부 장관상

기타 /

현)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 G-ART 공동대표

전) 서울대학교 강사 역임, 한국미협이사

작품 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대학교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양평군립미술관, 절두산박물관, 박수근박물관, 한온미술관, 동부그룹사옥, 장흥지방법원, 방배4성당, 배리어프리바이오연구소, 평창고려궁한옥텔, 복지TV사옥, 공갤러리, 한화갤러리포레 등



고완석 - 3전시관 전경

차가운 금속을 깨고 분출한 무위(無爲) 고완석의 '입체적 바라보기(LOOK)'

고완석 작가의 작품을 처음 마주한 곳은 2년 전 아산 모나벌리의 전시장 입구 외벽이었다. 자연의 빛과 물의 파동이 교차하는 그곳에서, 주변의 풍경을 끊임없이 반사하며 건축적 아이덴티티를 강렬하게 뿜어내던 미려 스테인리스 스틸 작품의 낯선 질감은 내 시선 속에 깊은 잔상으로 남았다. 캔버스와 물감이라는 익숙한 평면의 관습을 벗어나, 공간 전체를 거대한 캔버스로 삼아버리는 그 압도적인 물성의 힘. 그것이 내가 기꺼이 작가의 작업실을 직접 찾아가게 만든 이유였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가, 캔버스의 부드러움 대신 차갑고 완고한 스테인리스 스틸 작업을 30년 동안 진행하였다고 한다. 그는 거울처럼 모든 것을 비추는 금속 표면에 포토레지스트(작가는 이를 '상감기법'이라 칭한다) 방식으로 흠집을 내고, 그 부식된 표면에 유성 안료와 아크릴 물감으로 도상과 질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 공정은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반도체 공정에도 사용되는 기법으로 작가는 역설적이게도 수작업이 빚어내는 자연의 우연성과 섭리를 정교하게 새겨왔다. 에칭 기법으로 파인 거친 선들은 시간의 풍화를 암시하고, 그 안을 채운 다채로운 색채는 차가운 이성 속에서 꿈틀대는 뜨거운 생명력을 은유한다.

지난 수요일, 네오아트센터에서 개막한 고완석 초대전은 그 30년의 단조(鍛造) 끝에 마침내 캔버스로 귀환하여 작가의 또 다른 에너지를 목도하는 자리다. 이번 초대전 전시 작품 중 1천 호 사이즈 대작은 작업실 실내 공간이 아닌 옥상의 탁 트인 무한한 하늘 아래서 제작되었다. 동양화 전공자로서 30년간 억눌러왔던 그의 필력(筆力)이 열린 공간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흡수하며 거침없이 뿜어져 나온 결과물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새롭게 선보인 캔버스 신작들이 품고 있는 특유의 마티에르다. 묵직한 도료의 두께감과 날 선 엣지(Edge)는, 그가 오랜 세월 금속을 깎아내며 체득한 '감각'을 캔버스 위에 완벽하게 이식했음을 증명한다. 눈이 시리도록 짙한 마젠타와 코발트블루, 강렬한 노란색의 단색조 여백 위로 우주의 질서처럼 그려진 거대한 검은 획, 그리고 그 무거운 덩어리의 경계 끝자락에 사뿐히 내려앉은 한 마리 나비의 도상은 절대성과 찰나의 생명이 충돌하는 아찔한 미학적 쾌감을 선사한다.

이번 전시에서 우리는 1천 호 대작의 거대한 에너지가 네오아트센터의 쾌적한 화이트 큐브 안에서 어떻게 호흡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다. 한쪽 벽면에 평면적으로 억지로 나열하기보다, 과감하게 피스를 분리하여 메인 공간과 전시장 뒤편 아티스트룸에 나누어 설치하는 디스플레이를 택했다. 이를 통해 메인 전시장의 여백과 밸런스를 지켜내는 동시에, 분리된 작품 역시 하나의 완벽히 독립된 개체로 기능하도록 동선을 구축했다. 관람객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캔버스 신작의 뜨거운 생명력과, 스테인리스 금속 작품이 뿜어내는 차가운 이성이 교차하는 다층적인 공간을 감사하게 된다.

작가는 자신의 작업 화두를 "LOOK(바라보기)"이라 명명한다. "대상을 본다고 해서 그 진실을 다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작가 노트의 일갈처럼, 그의 작품은 유(有)와 무(無), 카오스와 코스모스라는 이분법적 경계가 맞닿은 입방체의 철학을 시각화한다. 금속의 일렁이는 표면은 단순한 반사체가 아니다. 감상자가 작품의 유기적인 형상과 더불어 그 안에 투영된 자신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철학적 거울'이다. "태초에는 법이 없었다"는 노자의 사상을 인용하며 "내 법을 만들라"고 외치는 그의 예술적 욕심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사유의 확장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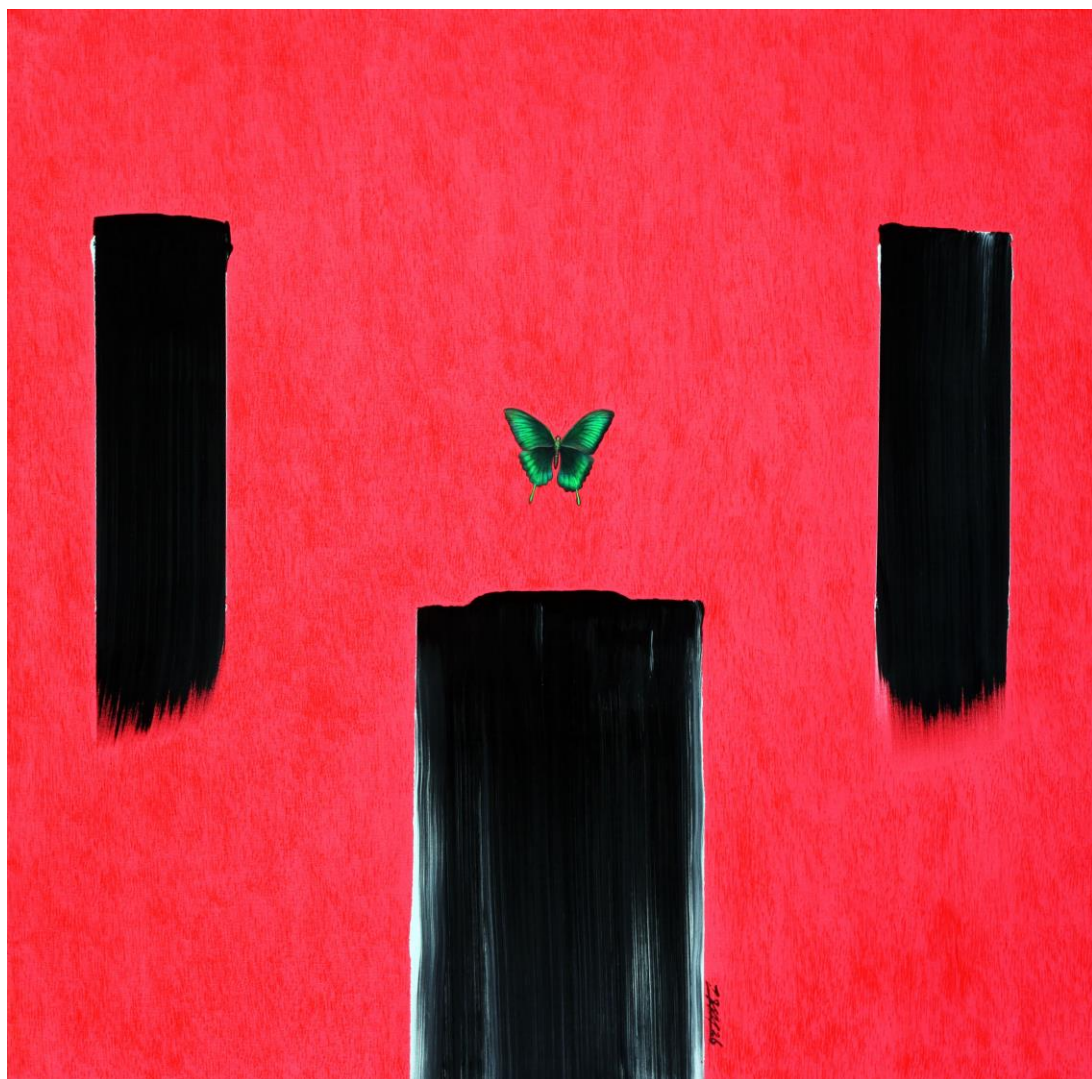
모나밸리의 차가운 금속 외벽에서 마주했던 강렬한 첫인상이, 작업실 옥상의 바람을 맞으며 뿜어낸 대작의 웅장한 필력을 거쳐, 마침내 네오아트센터의 갤러리를 가득 채우는 존재의 거울로 완성되었다. 차가운 금속판과 역동적인 캔버스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빚어낸 고완석 작가의 무위(無爲)의 시(詩)가, 전시장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LOOK'을 통한 진정한 삶과 내면 성찰의 귀한 사유적 장(場)이 되기를 깊이 소망한다.

/ 네오아트센터 박정식 대표



LOOK 26-101

180x180cm, Acrylic on canvas, 2026



LOOK 26-106

180x180cm, Acrylic on canvas, 2026



LOOK 26-109

114x140cm, Painting on stainless steel, 2026



LOOK 26-108

114x114cm, Painting on stainless steel, 2026

진익송 1960 - 2022

Jin Ik Song



홍익대학교 미술 대학 서양학과

뉴욕대(NYU) 대학원

영국 뉴캐슬(Newcastle)의 노섬 브리아대학교(Northumbria University)에서
방문 작가 및 박사 후 연구원(Post Doc. Fellow)

개인전 /

2024 특별 회고전, 청주시립미술관 오창전시관, 청주

2024 특별 회고전, 갤러리 MC, 뉴욕, 미국 등

단체전 /

2022 《Deep-Focus》, 리바 갤러리, 뉴욕, 미국

2022 《한 · 중 현대미술의 새로운 좌표》, 쉼미술관, 청주 등

수상 경력 /

1981 한국현대미술전 수상

1986 서울국제미술대전 특선 수상

1987 일본 동경아세아미술대전 수상

2010 ANBD(Asia Network Beyond Design Excellent Award), 엑설런트 어워드 수상

작품 소장처 /

삼성 교육 센터(더럼 잉글랜드), 바탕골 아트 센터, 충북대학교, 청주시립미술관



진익송 - 4전시관 전경

시간이 멈춘 자리, 예술은 스스로 길을 낸다 진익송을 기리며

2024년 늦여름, 청주시립 오창 호수도서관 전시장. 그곳에서 고(故) 진익송 작가의 작품을 처음 마주했던 순간을 나는 지금도 선명히 기억한다. 무수히 쌓여 멈춰있는 시계들과 굳게 닫힌, 혹은 반쯤 열려있는 문들 사이를 거닐며 작품이 뿜어내는 무언의 에너지에 깊이 압도당했다.

수많은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우리네 인생의 궤적을 다시금 돌아보게 했던 그날의 울림. 그 깊은 감동을 가슴 한편에 품고 지내다, 마침내 이곳 네오아트센터 4관에서 작가의 예술혼을 온전히 조명하는 초대전을 열게 되었다. 개막을 앞두고 전시장에 작품들을 하나둘 제자리에 설치하며, 나는 다시 한번 작가가 남긴 예술의 가치와 작품이 담고 있는 삶의 흔적들을 일부나마 느낄 수 있었다.

진익송 작가는 평면이라는 한계에 순응하지 않고 끊임없이 매체를 전복시킨 진정한 아방가르드였다. 이번 전시에서 유독 나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거친 화판을 직접 뚫어 물리적인 ‘구멍’을 만들고 액자 앞뒤를 유리로 마감하여 단절된 양면이 서로 소통하는 투명한 ‘통로’를 개척한 작품들이었다.

판화 작업 역시 마찬가지다. 복제된 평면 이미지 위에 차갑고 날카로운 실제 쇠못을 오브제로 사용하여 판화의 2차원적 한계를 단숨에 부수고 유일무이한 입체 부조로 승화시켰다. 폭력적인 시대와 문명의 상처를 은유하듯 나무 형상 위에 꽃혀 있는 그 못 들은, 짝 막힌 현실의 벽을 부수고자 했던 작가의 날 선 의지 그 자체다.

시간이 멈춘 자리, 예술은 스스로 길을 낸다 진익송을 기리며

그의 대표작인 시계 시리즈 ‘Timeless Door’ 앞에 서면, 거대한 시간의 해일이 밀려오는 듯한 숭고미를 느끼게 된다. 롤렉스, 구찌 등 세속적 욕망을 상징하는 명품 시계의 파편들은 모두 제각각의 시간을 가리킨 채 박제되어 있다. 이는 영원함을 소유하려는 현대인의 헛된 욕망을 예리하게 꼬집는 동시에, 덧없이 흘러가는 파편화된 시간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본질(문)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더불어 ‘살균기(STERILIZER)’라는 낡은 나무 상자 안에 연약한 아기 인형과 녹슨 열쇠들을 가둬둔 아상블라주(Assemblage) 오브제들은 현대인의 상실감과 불안을 초현실적인 언어로 건네며 우리를 깊은 사유의 늪으로 이끈다.

이번 초대전이 열리는 네오아트센터 4관은 그 자체로 진익송의 작품 세계를 온전히 담아내는 하나의 캔버스가 되었다. 빛과 그림자, 그리고 절제된 여백이 완벽한 리듬감을 이룬 이 공간에서 작가의 오브제들은 마침내 가장 온전하게 호흡하고 있다.

작가의 욕신은 자연의 순리대로 시간을 멈추었으나, 그가 캔버스 위에 남긴 시계 부품들과 그의 숭고한 예술 세계는 이곳 전시장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있다. 이번 전시는 단지 멈춰진 과거를 회고하는 자리가 아니다. 내일, 이 공간으로 걸어 들어올 관람객들이 진익송이라는 작가의 깊은 예술성을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 네오아트센터 박정식 대표



공감

76.2x84cm, Mixed media, 1988



공감

76.2x76.2cm, Mixed media, 1988



What about me?

17.8x17.8cm, Mixed media, 1997



Twin Light

65x50x20cm, Mixed media, 1999

네오아트센터

장백순, 고완석, 故진익송

1, 2관

장백순 - 시공(時空)

3관

고완석 - Look

4관

故진익송 - Timeless Door

2026. 4. 29. WED — 6. 21. SUN